



● 자유와 도전이 넘치는 젊은 캠퍼스에서 전공지식, 외국어 능력은 물론 좋은 품성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INU 사람들.



인문시대

CONTENTS

- 03 INU 스토리 우리 대학의 꿈
- 04 INU는 지금 보이는 것 이상,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우리 대학 캠퍼스

More Special INU

- Glocal Talent INU: 지역의 인재를 창의적인 세계의 인재로
- 08 INU 인터뷰 취임 1주년 맞은 최성을 총장
- 10 INU 경쟁력1 송도국제도시의 미래가치 그리고 INU의 가능성
- 12 INU 경쟁력2 글로벌 교류 활성화로 세계로 뻗는 INU

More than all, INU

- 14 INU 휴먼파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손양훈 경제학과 교수
배드민턴 국가대표 김소영 체육학부 11학번 학생
- 18 글로벌 탠트 미국 랜더대학교 교환학생 정명수 학생
- 20 INU 은에어 생명과학기술대학

INU Now

- 24 올 댓 인천 인천의 건국 신화와 시조 설화
- 26 인천 포원 과학 꿈나무들의 요람,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 28 드림은 INU 우수기업 전문교수 제도 운영으로 취업률 Up!
- 30 INU 일사가이드 2014학년도 인천대 정시모집은 이렇게!
- 31 INU 뉴스&이슈
- 34 I love INU
- 36 발전기금 출연자
- 37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우리 대학의 꿈

글 이호철 교수
정치외교학과,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꿈'을 이뤘다가자고 역설하였다. 19세기 아편전쟁을 계기로 서구 열강들에게 국토의 여기저기가 뜯겨나가는 '치욕의 세기'를 당하고 결국 자신들 간의 내전을 거쳐 세운 국가가 중국이다.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꿈꾸었던 마오쩌둥 시대의 30년은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가난한

나라를 남겼다.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중국을 해방시켰다는 공(功)과 함께 혼돈과 파괴로 얼룩지고 10억의 중국인들을 가난의 질곡으로 몰아넣었다는 과(過)를 피할 수 없다.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중국을 해방시킨 것은 덩샤오핑의 비전과 리더십이었다.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을 미국 다음으로 부유하고 강한 국가로 바꿔 놓았다. 이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지난 160년간 중국이 걸어온 길은 중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한 편의 대서사시이다.

30세를 막 넘긴 우리 대학은 어떤 꿈을 이루어나가야 할까? 앞으로 30년 후 환갑을 맞을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대학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중국이 걸어온 흥망성쇠의 길을 갈 수는 없다. 흥(興)과 성(盛)의 길만으로 가야 한다. 수도권 주변 대학이라는 자괴감을 떨치고, 자유와 창의의 학풍이 꽃피고 문향이 베어나는 대학,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탐구하고, 과학과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학,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들어 백 가지의 꽃을 피우고 인류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대학. 나는 30년 후 우리 대학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쌓여간다고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에 맡겨둔다고 우리의 꿈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공유하고, 치열한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을 하나씩 이뤄 쌓아나갈 때에만, 쌓이는 시간은 우리의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이다.



보이는 것 이상,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우리 대학 캠퍼스

● 국립대 전환과 함께 송도 시대를 맞은 우리 대학은 변화의 바람 속에 다양한 풍경을 갖췄다. 시야가 탁 트인 캠퍼스는 제33회 대학가요제(2009년),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2012년, 2013년)의 촬영 장소가 됐고, 말끔한 강의실에서는 필립스 면도기 '영킷' 광고(2013년)가, 건물 곳곳에서 공익광고인 '대한민국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와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기업금융나눔목 캠페인' 등이 촬영되기도 했다.

글, 편집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이 주목받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성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지어진, 자연친화적인 송도 캠퍼스는 25개동의 최첨단 유비쿼터스 환경을 갖췄다. 배움과 꿈을 키우는 전당으로,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무한 가능성의 대학으로 우리 대학이 청소년, 학부모, 일반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

상큼 발랄, 풋풋! 우리 대학 드림이와 함께 캠퍼스 투어

지난 9월 10일, 대학 본부 옆 홍보관에는 화사한 분위기가 흐른다. 그날도 어김없이 드림이 언니 오빠들이 방문객을 맞고 있었다. 홍보관을 시작으로 본관, 글로벌 아일랜드, 도서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물 곳곳에 숨은 우리 대학의 비전도 소개한다. “여러분 본관 건물 사이가 뚫려 있는 게 보이죠? 이 사이로 보이는 송도와 중앙로 끝의 바다가 이어져 세계로 가는 문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아일랜드에 갈거예요. 그곳에서는 영어만 써야 해요. 안 그러면 커피 한 잔 사먹기도 어렵답니다(웃음)”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드림이는 우리 대학을 알리는 홍보대사다.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대학을 알고 싶어 하는 이가 있다면 달려간다. 소수정예의 인원으로 투어단을 만들어 특별한 견학을 만들어 주는 이들은 대학의 꿈과 낭만을 주는 ‘드림이(Dreamwe)’다. 이들은 캠퍼스 안내뿐 아니라 대학 생활, 학과 소개, 수업 등 대학과 관련된 A-Z를 친절히 알려준다. “저희 학교 정말 이쁘지 않아요?”라며 발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미소천사 드림이. 풋풋한 대학생과 생생한 캠퍼스 라이프를 떠올리게 만든다. 이날 방문한 학교는

인천 인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영신고등학교, 드림이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가 이들에게도 기분 좋은 경험이 됐으리라.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대학, 캠퍼스 속에 답이 있다

“저기 보이나요? 맑은 날이면 바다가 잘 보인답니다. 그리고 송도 근처에는 다국적 기업, 기관이 속속 들어서 있는 것도 보이죠?” 글로벌 아일랜드 전망대, 드림이의 낭랑한 목소리를 따라 학생들의 눈도 따라간다. “인천대학교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신기한 눈으로 전망대를 관찰하는 아이들의 눈이 빛난다. 국제업무단지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송도의 풍경 사이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대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다. 다음 안내지는 도서관과 컨벤션센터다. 이곳 또한 캠퍼스 투어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다. 도서관 1층 로비와 컨벤션 센터는 천장이 높고 자연채광으로 이루어져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단체 사진을 찍으며 우리 대학 탐방의 추억으로 남기기도 했다.

비전과 꿈을 함께했던 우리 대학 캠퍼스 투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학, 그 비전을 볼 수 있었던 캠퍼스 투어는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이 됐을 것이다. 미래는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각자의 경험이 바탕이 된다. 좋은 경험 속에서 세운 미래, 꿈이 소중한 간직될길 바라본다. 그리고 그 설계의 시간 속에 오늘의 시간이 매 순간 우리 대학의 비전과 함께하길 기원한다. INU



지역의 인재를 창의적인 세계의 인재로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풍토를 존중해야 함을 뜻하는 말이다. 사립대로 출발해 시립대로, 국립 대학법인으로 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 대학은 이 경험을 살려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시립대와 국립대 출범 시 보여준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조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 지역특색에 맞는 연계사업 추진으로 대학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성을 총장은 “국립대 출범 때 보여 주셨던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고 또 인천지역에 들어선 글로벌 대학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지역화이고 세계화”라며 “인천의 역량을 최대한 대학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는 것이 국립 인천대의 책무이자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Glocal Talent INU

인천 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국립대로 육성할 것 취임 1주년 맞은 최성을 총장



2012년 7월 총장으로 취임,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의 초대 총장을 맡고 있는 최성을 총장이 지난 7월 29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최 총장은 '국립대'와 '송도국제도시'라는 양 날개를 달고 '인천 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정리 | 편집실

Q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초대 이사장과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어떠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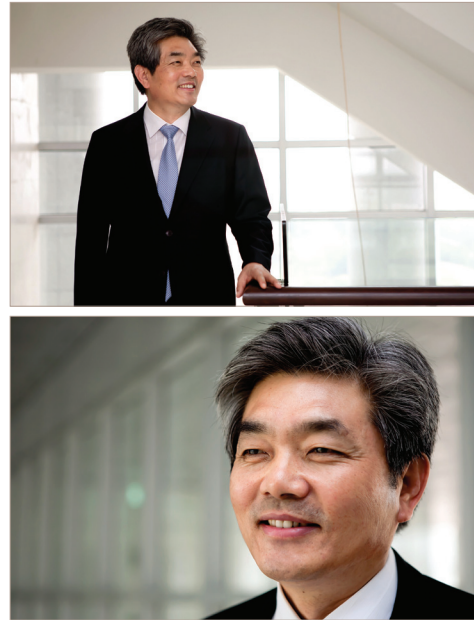
성공적인 국립대 출범과 정착을 위해 성원하고 지지해준 시민들과 지역사회, 대학 구성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인천대는 1979년 단과대로 출범해 1988년 종합대 승격, 1994년 시립대 전환, 2009년 송도 캠퍼스로의 이전, 2010년 인천전문대학과 통합, 2013년 1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전환 등 세계 어느 대학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모두 성공적인 대학 발전의 계기로 만들며 발전해 왔다. 이번 국립대 전환도 '제 2의 창학'이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 구성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인천 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국립 인천대학교 완성"으로 보답하겠다.

Q 취임 1년을 맞이하여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0년 5대 거점 국립대학 도약을 위한 INU 송도비전 선포, 행정조직을 성과 중심의 탐제로 전면 개편, 국고 및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 본부 중심에서 단과대학 중심으로 의사결정과정 개선, 문화대학원 신설, 기초 교육원 강화, 기숙사BTL 사업 유치, 사범대학 송도 이전 등이 기억에 남는다. 한편, 국립대 전환 이후에도 종전 체결된 MOU를 이유로 국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동안 대학 및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국고 지원 내역이 포함된 것은 큰 성과라 생각되며, 이것이 정부의 본격적인 국고 지원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Q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대학교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학이 위치한 송도국제도시에는 우리나라가 유지한 유엔 산하 기구 및 국제기구 12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뉴욕주립대, 연세대 등 국내외 우수 대학의 캠퍼스가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유엔 3대 기구 중 하나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입주도 예정되어 있는 등 세계적인 환경, 교육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송도국제도시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국제 감각을 갖추고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히 통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GCF와 관련해서 연계전공 또는 학과 개설, 국제기구 출신 외국인 전임교수 영입, 동북아기후에너지포럼 개최, 기후 테마파크 조성, 외국인 정주서비스센터 설치, 녹색기후환경연구소 설립 등 핵심전략사업을 통해 교육·연구·산학·융복합을 대학의 DNA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화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외국인 전임교수 비율을 10%, 영어 원강 비율은 30% 수준으로 각각 끌어올리고 영어사용국에 교환학생과 인턴으로 연간 30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지역 인재를 '멀티스킬(multi-skill)'을 갖춘 세계적인 인재로 키울 계획이다. 2009년 46만㎡의 부지에 최첨단·환경친화형·인텔리전트형 건물로 완성된 송도 신캠퍼스는 교육·연구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Q 최근 총장님의 관심 사항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조에 부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연계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역사적·지리적·인문적 순회강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지역 군·구와 차례로 업무 협약을 맺어 지역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사회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봉사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교류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인천대학교가 성장하려면 교수들의 연구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INU 송도비전에서도 향후 7년간 SCI 논문 실적을 현재보다 3배 증가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수 신입교수를 충원하고 대학원생 등 연구협력 인원 확보, 연구비 지원 확대 등 연구시스템 전반을 개선하여 교수연구력을 국·공립대 상위권으로 향상시키겠다.

Q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국내 최고 중국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해 초 '차이나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중국학술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차이나 프로젝트는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도 지역 내에 중국 전문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말 문을 열게 될 중국학술원은 기존 중국학연구소와 인문학연구소를 통합, 중국학을 전문으로 연구하게 된다. 학생과 기업들에게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문교양 강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해 중국 관련 동북아 거점 교육연구센터로 구축하겠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견주게 될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므로, 중국학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우리 대학을 국내에서 중국을 가장 많이 아는 대학으로 육성하겠다. INU



송도국제도시의 미래가치 그리고 INU의 가능성

● 송도에 입주한 유엔 및 국제기구들

구분	기구명	입주시기
유엔기구	유엔 녹색기후기금(UN GCF) 사무국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	2013년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아·태 지역 국가의 사회경제 현안분석 및 경제발전 지향, 다자간 협력개발 및 지원	2010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기술훈련센터(UN APCICT) 아·태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 자문 서비스 제공	2006년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 ISDR) 동북아시아사무소 근무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 조정 및 지원	2009년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 ISDR) 도시방재연수원 국내외 전문가들이 재해 공동예측 및 대응, 국가 간 방재기술 협력관계 구축, 각국 공무원과 시민단체 대상 방재교육 실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 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 아시아 각국 정부에 대한 협약 비준, 입법초안 작성	2012년
	유엔 지속발전가능센터(UN OSD)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최초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2012년

국제기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 국제적인 이동성 조류와 서식지 보전업무	2009년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 사무국 동북아 6개국의 생태보전과 환경협력 추구	2010년
준 국제기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본부 150여 개국 선거 관련 기관의 정보·지식·경험 교류의 활성화,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선거 지원	2013년말
	UN 기탁도서관 유엔이 발간하는 문서와 출판물을 배포	2009년
유치 중인 국제기구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사무국 미국과 EU 등 생물공학 관련 학회와 정보교류 및 협력 활성화, 아시아 지역 내 바이오산업 중심의 생물공학 연구활동	2010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모델 제시 및 전략수립, 자문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각국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 국제무역 확대 및 국제수지 균형, 기술원조 등을 통해 각국의 경제부흥과 개발촉진, 정식 명칭은 국제부흥개발은행	

(2013년 9월 현재)

유엔 산하 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송도국제도시에 잇달아 정착하고 있다. 이미 12개 국제기구가 들어섰으며 올해 연말에는 유엔 3대 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도 들어선다.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송도에 30개 유엔 산하 기구를 유치하겠다는 국제도시로서의 송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글 | 편집실 사진 제공 및 도움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난 5월 3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유엔기구 사무소의 입주를 환영하는 개소식이 열렸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기술훈련센터(UN APCICT),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 ISDR) 동북아시아사무소·도시방재연수원,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UN 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 등 4개 사무소가 입주했다. 기존 갯벌타워에 있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과 유엔 녹색기후기금(UN GCF) 사무국도 올해 안에 G타워에 입주할 예정이다. 송도가 유엔의 아시아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GCF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조성하기로 결정한 유엔 산하 기금으로 유엔 3대 기구 중 하나로 꼽힌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GCF 사무국이 들어서면 주재원 500명이 상주하고 매년 기금을 따내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송도를 찾기 때문에 인천시에만 연간 1900억 원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GCF는 선진국들이 추렴해 2020년 1000억 달러, 2027년 8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제기구가 들어서면 각종 회의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엔의 아시아 허브 '송도'

국제기구들의 송도 입주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송도국제도시에 등지를 튼 국제기구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 유엔 산하 6개 주요 기구 가운데 하나인 APCICT는 ESCAP 62개 회원국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에게 정보통신기술 교육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 기탁도서관은 유엔이 발간하는 문서와 출판물을 배포하는 기관이다.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 ISDR) 동북아시아사무소와 방재연수원도 송도에 각각 입주했다. 동북아시아사무소에는 유엔 직원이 근무하면서 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을 조정하며 지원하고 있다. 또 방재연수원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종 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각국 공무원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방재교육도 맡고 있다.

이밖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 사무국도 있다. 2010년에는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사무국과 동북아시아 6개국의 생태보전과 환경협력을 추구하는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 사무국을 유치했다. ESCAP 회원국의 경제사회분야 개발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동북아시아사무소도 설립됐다. 2012년 1월에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가 송도에 입주했다. 이 사무소는 아시아 국가의 협약비준과 입법초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 6월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OSD)가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 들어섰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브레인 양성에 주력하는 INU

우리 대학은 유엔기구들이 입주해있는 G타워와 차로 불과 5분 거리다. 따라서 송도라는 지역환경을 대학 운영과 연계하면 우리 대학으로는 엄청난 발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GCF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가령 올 연말 GCF 사무국 개소에 맞춰 개최 예정인 '동북아 기후·에너지 포럼'에는 우리 대학과 자매결연하고 있는 중국 푸단대, 일본 와세다대가 우리 대학과 더불어 이 포럼의 공동 주관자로 참여해 동북아시아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협력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했다. 또한 환경에너지 등 GCF 연계 전공 학과를 개설하고, 국제기구 출신의 외국인 전임교수를 영입할 계획이다.

GCF의 전문직원은 주로 해외 명문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선 서포트 직원의 체계적 양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연계 전공 트랙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우리 대학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과 협의를 거쳐 이들 GCF 연계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다.

"지역의 인재를 창의적인 세계의 인재로"라는 슬로건으로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해온 우리 인천대학교, 국제기구들이 속속들이 들어서서 송도라는 환경적 우위로 인해 국제화라는 우리 대학의 비전은 한층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세계를 선도할 브레인 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송도 내 국제기구와의 산학협력도 더욱 증가할 수 있다. INU

글로벌 교류 활성화로 세계로 뻗는 INU

일본자매대학 학생과 3주간 한국 여행



왼쪽부터 오노 시야카도, 우에키 하루미, 시카우치 카이토, 박희중, 김소영 학생



● 동북아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대학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은 필수다.
동북아 중심 도시 송도에 새 터전을 유치한 우리 대학은 세계 각국의 배움으로 맺은 인연을 통해 세계화 역량을 넓히는 중이다.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미국 등의 우수 대학과의 인연은 앞으로 재학생들의 가능성은 물론 한국을 알리는 대사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다. 글, 편집실

올해 우리 대학은 일본의 자매결연대학인 중앙대학, 소노다여자대학, 스즈카국제대학, 히로시마슈도대학과 3주간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수업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원도 농촌지역을 방문해 옥수수, 감자와 같은 농산물을 직접 수확해보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DMZ 지역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의 명소인 명동, 종로는 물론,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를 돌아보는 등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대를 넘어 대한민국을 알리는 기회

이번 일본자매대학 학생 초청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총 40명의 일본 학생과 15명의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참여한 일본 학생들의

대부분은 한국 문화는 물론 한국 사람을 알아간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학생 참여자 중 제일 연장자였던 테라모토 유지 학생(히로시마슈도대학)은 “한국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드라마나 가요, 영화로 한국을 느껴온 일본 학생들이 한국의 정을 흠뻑 느낄 수 있었던 건 우리 대학 버디(도우미) 제도의 도움이 컸다. 2: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봉사자들은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참고로 ‘버디’는 외국인학생과 우리 대학 학생을 1:1로 매칭하여 학교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도우미제다.

유럽, 중남미 국가들과도 활발한 교류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행사는 매년 참가자수도 늘고 있다. 그만큼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남미 국가의 대학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대학교가 국제화 역량을 넓혀 나가길 기대해 본다. INU

◆ ‘버디’ 자원봉사자

박희중(물리학과, 졸업생)

여름학기에 졸업했지만 마지막 학교생활에 추억을 남기고 싶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본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추억도 많이 남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김소영(일어일문학과, 2학년)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3주간 인천을 중심으로 돌아다닌 경험이 처음이어서 뜻 깊었습니다. 일본 문화와 언어를 사랑하는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 기쁩니다.

◆일본 히로시마슈도대학 재학생

시카우치 카이토(경제학, 3학년)

처음으로 DMZ구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국경지역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오게 되면 이번 인연으로 만난 친구들과 한국의 다른 지역에도 가고 싶습니다.

우에키 하루미(경영학, 2학년)

경복궁 방문, 민속촌에서 체험도 재미있었고, 매일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도 유익했습니다. 이전에 드라마나 가요를 통해 접했던 한국을 인천대학교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더 깊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또 오고 싶습니다.

오노 시야카도(법학, 2학년)

히로시마슈도대학보다 캠퍼스가 넓고 학생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걸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세우고, 마음을 다해라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손양훈 경제학과 교수

무더웠던 지난 여름, 연일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로 가득했다. 그만큼 전기는 생필품이자 복지의 기본재이며 무엇보다 국가와 산업을 이끌어 갈 기본 조건인 것이다. 전기절약을 외치는 구호 가운데, 이제까지 몰랐던 에너지의 소중함을 생각만이 아닌 마음으로 실천해야 함을 느낀다.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지구와 환경, 고갈되어가는 자원과 미래를 위해 좀 더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운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글 | 편집실

에너지를 이성적이면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매년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의 문제를 차분하게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곳이다. 이곳을 이끌어갈 신입원장에 임명된 우리 대학 경제학과 손양훈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에너지 문제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자를 대하던 온화한 지성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냉철하고 분석적인 이성으로 능력을 발휘할 차례다.

스마트한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은?

7월 29일에 취임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손양훈 원장은 “에너지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며 “좀 더 슬기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정책에 필요한 자료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를 개발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크게 그리고 그 안에서 에너지 공급과 확보, 효율, 환경 등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면서 생기게 될 모든 일들을 예측하고 올바른

KEEI

에너지경제연구원



YANG-HOON, SONN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대학의 변화와 함께한 20여 년

우리 대학에서 2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손양훈 원장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중요한 자리의 부름인 만큼 열심히 이 일을 수행하고 싶다”고 취임소감을 전하며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말했다.

우리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지내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난 이곳에서 자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그런 성장의 길을 함께 걸은 우리 대학교를 자랑스러워했다.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저는 우리 대학의 변화와 함께했습니다. 시립화와 국립화, 학교통합, 캠퍼스 이전과 같은 다이내믹한 성장들이 저의 20년 재직기간 동안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학교 안에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겪으며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이 모두를

이뤄낸 우리 대학의 동력은 남다른 저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타 대학에서는 업무도 못 낼 일들을 해낸 것을 보면서 그만큼 성장하려는 의지, 발전하려는 마음이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든든한 우리 대학, 학생들도 자부심을 갖길

마지막으로 손양훈 원장은 우리 대학의 내일을 위해 애정 어린 말도 전했다. 우선 대학의 내실을 탄탄히 하기 위해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재학생은 물론 동문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호기심과 적극성으로 우리 대학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저는 우리 대학을 ‘든든한 백(Background)’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한 세월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자기를 높이고 귀하게 여겨 ‘인천대 학생’이라는 단어를 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쳐다보면 어느새 자신이 성장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INU

KIM SO YOUNG

서틀콕 유망주의 하얀 날갯짓

배드민턴 국가대표
김소영 체육학부 11학번 학생



인재창 감독(맨 왼쪽), 전지엽 코치와 함께

우리 대학 체육학부 3학년 김소영 학생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27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7월 6일~17일)와 제46회 전국학교대항선수권대회(8월 11일~16일)에서 연이어 3관왕(혼합단체전, 혼합복식, 여자복식)을 차지하며 골드빛 파워 스매싱을 내리꽂았다. 배드민턴 전문가들은 김소영 학생을 모처럼 등장한 여자복식 유망주로 주목하고 있다.

글 | 편집실

지난 7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소영 양은 여자복식과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중국 선수들을 연달아 격파했다. 대회 전까지 세계 무대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터라 이 대회에서의 우승으로 소영 양은 세계 배드민턴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영 양의 3관왕 쾌거에 세계배드민턴연맹은 “아주 어린 선수가 아주 좋다(So young is so good)”며 연맹 홈페이지는 소영(So-young) 양의 이름을 따와 기사 제목을 달았을 정도다. 사실 김소영-장예나 조는 세계랭킹 53위, 김소영-김기정 조는 79위로 세계랭킹이 높은 편은 아니다. “중국 경기 전 긴장을 많이 했는데 예나 언니(여자복식)와 기정 오빠(혼합복식)가 리드를 잘 해줘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더욱이 제 생일(7월 9일)에 금메달을 목에 걸어 더욱 기뻐합니다.” 지난 8월,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제46회 전국학교대항선수권대회에서도 소영 양은 여자대학부 단체전, 여자복식, 혼합복식에서 정상에 올라 모두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달 동안 연거푸 3관왕에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172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파워를 소영 양의 강점으로 평가한다. 인재창 우리 대학 여자 배드민턴 팀 감독은 “소영이는 신체 조건도 좋아 파워가 넘칩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선수 간에 유대 관계도 좋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재목이죠”라고 했다.

배드민턴 3관왕은 So young!

‘뿔’ 떠올랐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16개(혹은 14개)의 하얀 날개, 서틀콕, 셔틀(Shuttle)이란 별칭을 쓰는 복처럼 왕래, 왕복의 의미가, 콕(cock)은 ‘수탉’이나 ‘산새’라는 뜻이 있다. 왔다 갔다 하며 날아다니는 산새, 그래서 서틀콕은 버드(bird, 새)라고도 불린다. 무게는 5g도 채 되지 않아 25개 구기종목 중 탁구공 다음으로 가볍다.

소영 양에게 운동선수라는 날개를 달아준 서틀콕과의 인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되었다. 크고 둥근 눈망울에 하얀 미소가 가득했던 열한 살의 어린 동심은 선수를 모집한다는 말에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다. 특별히 운동에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승부욕이 있다 보니 연습량이 많아졌고 늘어난 연습량은 배드민턴에 대한 애정을 안겨 주었다.

“배드민턴은 다른 구기종목에 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이긴 합니다. 확실히 시작이 쉽고 처음 라켓을 잡은 사람도 셔틀을 쳐 넘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셔틀의 움직임은 순간 최고 시속이 엄청납니다. 여유있게 공간을 날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연출하죠. 그거 아세요? 배드민턴은 모든 스포츠 종목 중 아킬레스건이 가장 많이 끊어지는 운동입니다. 보기보다 격렬한 운동인 것이죠. 가벼움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스피드. 그것이 배드민턴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로서 소영 양의 첫 우승은 고등학교 시절 중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의 여자복식에서였다. 당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경기가 끝날 때마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탈진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결승까지 올랐고 결국에는 우승으로까지 이어졌다. 처음 맛본 승리의 기쁨에 사춘기 소녀는 발에 피로골절이 왔다는 것도 몰랐다. 덕분에 우승 직후 직행하게 된 곳이 병원이었고 한달 동안 꼼짝 못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후 슬럼프도 몇 번 겪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2011년에는 여자복식 부문 국가대표에도 발탁되었다. 세계 정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소영 양은 “아직 발이 느리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미숙해요. 그러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며 포부를 다졌다. 다음 목표는 내년 인천 아시안경기대회와 3년 뒤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2016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다. INU



1, 3, 4 랜더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2, 5, 6 따뜻한 환대로 홈스테이 기간 내내 뜻깊은 추억을 선사해준 아론&줄리 가족들

아론&줄리 가족과 함께했던 지난 여름은 따뜻했네

미국에 온 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미국 음식도 익숙해지고 친구들을 만날 때 허그(hug)도 익숙해졌다. 랜더대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분기점을 지나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너무나 좋았고 행복한 추억들이 셀 수 없이 많아 어떻게 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 정도다.

글 · 사진 | 정명수 예체능대 체육학과 07학번, 미국 랜더대학교 교환학생

너무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올 초 1월, 나는 랜더대학교를 와서 1년 동안 지낼 수 있게 되었다. 1년 중 4개월이 여름방학이라 처음에는 어떻게, 어디서, 뭘 할지 막막했다. 여기서기 수소문을 해보아도 당장 4개월이라는 긴 방학동안 지낼 곳이 없었기에 한국을 돌아갈까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평소에 다니던 교회 분들에게 홈스테이를 요청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아론과 줄리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홈스테이와 관련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던 중 3개월 동안의 숙식비를 문의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임스(나의 영어이름)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 기쁘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극구 사양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의 진심 가득한 환대 속에서 나는 그렇게 뜻 깊은 홈스테이를 시작했다.

아론과 줄리 가족들은 나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주며, 동물원을 갈 때도, 파티를 갈 때도 항상 초대해 주었다. 영화에서만 보던 트리 하우스(Tree house, 큰 두 개의 나무 사이에 고정되어 공중에 떠있는 작은 집)도 같이 만들었고 홈메이드 맥주도 직접 집에서 담그며 정말 가까이에서 미국인들의 생활들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아론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나는 방학동안 너무나도 여유롭게 책도 읽고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하면서 미국축구 심판 자격증까지 딸 수 있었다. 말 그대로 “Unbelievable”한 시간들이었다. 랜더대학교에서의 생활 역시도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랜더대학교는 1872년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우드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대학과는 지난 2010년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그동안 교환학생, 단기연수,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56명의 학생들이 교류했으며 현재는 나를 포함해 우리 대학 학생 8명이 수학하고 있다.

랜더대학교는 전교생이 3,000명 정도로 우리 대학교에 비하면 소규모다. 그러나 규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간에 친밀감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식당, 헬스장, 도서관,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친근하게 말을 건네며 여유롭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인 친구들과 식당에서 만나면 식사를 마치고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다. 또한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도 룸메이트 3명 중 두 명이 현지인들로 지정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에어컨 사랑, 럭비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9개월에서의 미국 생활은 나의 생각, 성격, 가치관과 식습관까지 바꿔 놓았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준 우리 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글을 통해, 미국을 오기 위해 도와주셨던 교수님들, 그 밖에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국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나가라! 직접 경험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INU

바이오 메카 '송도'에서
미래핵심인재를 키우다
생명과학기술대학

COLLEGE OF
LIFE SCIENCES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우리는 '의, 식, 주'를 꼽는다. 먹고, 입고, 자는 것, 아주 기본적인 이 권리 위에 21세기는 새로운 권리를 추가한다. 바로 '아프지 않게 오래오래'라는 수식어다. 무병장수의 꿈,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위해 인간은 정신적인 것은 물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과제 속에 인류의 과학기술은 막중한 사명감을 띄고 진일보하고 있다. 신의 영역에서 인간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과학기술은 의학과 함께 생명과학으로 그 역할을 차치하고 있다. 미래,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생명과학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글 | 편집실



COLLEGE OF LIFE SCIENCES

최근 바이오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국제업무지구 송도에는 이와 관련된 정부와 시의 정책적 지원이 약속되고 있다. 송도지구에는 56만 4,159㎡ 규모의 바이오메디파크와 바이오리서치콤플렉스(BRC), 바이오테크놀로지(BT)센터가 2013~2014년까지, 청라지구에는 BT·IT 융복합 연구단지가 2014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융합,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에너지 등 6개 분야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육성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 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은 대내외적으로 역량을 넓힐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이미 2012년부터 인천시의 지원으로 우리 대학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신설했고, 2015년 생명과학연구소와 생명과학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산업현장에 학생들을 투입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생명과학기술대학

우리 대학의 생명과학기술대학은 생명과학부와 생명공학부로 나뉘며 생명과학, 분자의생명, 생명공학, 나노바이오전공으로 세부적으로 나뉜다. 생명과학의 기초학문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바이오를 기반으로 나노기술(NI), 정보기술(IT) 등의 관련 학과를 포함으로써 융합학문을 지향하며 발전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생명공학부(생명공학전공)에는 김정완, 이원중, 서명지 교수님이, 생명과학부(생명과학전공)에는 배양섭, 임경환, 김길원, 김재광 교수님이 계신다. 생명과학부(분자의생명전공)에는 안순길, 이미가엘, 강하라, 예정용 교수님이, 생명공학부(나노바이오전공)에는 윤기병, 배철훈, 이승호, 심민석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래가 기대되는 현재,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의 장점 중 하나는 배움에 열정적이고, 가르침에 아낌없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배움에 적극적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학년 때부터 실험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수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학생 각자의 호기심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각기 다른 개성의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생명과학부 김길원 교수는 “요즘 기업체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원하지 않아요. 기업에 학생을 추천하기 위해서 교수들도 그만큼 학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학생에게 맞는 기업은 어떤 곳인지 알려면 학생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학생이라면 그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라며 애정을 표했다.

인턴프로그램은 물론, 봉사활동까지 참여

이러한 교수들의 지원과 학생들의 참여는 생명과학기술대학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든다. 대학 안에 갇힌 교육이 아닌 사회 속에서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학생은 물론 대학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생명과학기술대학은 생명과학부로 있던 당시부터 산업체 간의 인턴활동 지원해 오고 있었고,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 여름에는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생회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과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됐다. 교수회관 3층에서 3일간 진행된 이 행사는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자원봉사이다. 행사는 학생들이 주도하지만 이들의 활동을 열렬히 지지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최병이 학생(3학년)은 “학과 차원에서 매번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들이 와주셔서 학생들을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 감동합니다. 자신들의 일처럼 학생들을 신경써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학에 온 것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런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누는 기쁨도 느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부심을 표현했다.

국립대 전환과 송도 캠퍼스 이전은 생명과학기술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희망이 스스로 행동하는 힘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성과를 위해 아직 준비할 것이 많은 생명과학기술대학의 현재는 미래만큼 밝다. INU



바이오 분야의 산학연 네트워크로 시너지 강화할 것

임경환 학장 인터뷰



생명과학기술대학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대학의 비전과 함께 생명과학기술대학의 가능성도 넓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우선 송도 캠퍼스 이전과 함께 송도 바이오산업체가 입주하면서 그만큼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학생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수업 참여도도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열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수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기술대학만의 특징이 있다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실험환경을 제공합니다. 1학년 때부터 실험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는 사회적으로도 취업 시 인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배경 때문입니다. 이런 활동이 후에 교수가 학생을 기업에 추천할 때나 진로 지도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은?

교과과정개편위원회를 단과대학 내부에서 만들어서 교과과정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결연해 장학금 유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각자의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도에는 베르나바이오테크코리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셀트리온 등 바이오 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은 물론 지원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대학에는 각 분야별로 최고를 자랑하시는 교수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위치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쌓여 나가 학부의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옛날 옛적 인천 이야기

인천의 건국 신화와 시조 설화



설화

비류국 건국신화

비류와 온조는 삼각산에 올라가 서로 살 곳을 정하기로 했다. 형인 비류는 바닷가에 살기를 원했으므로 문학산에 성을 쌓고 살게 되었으며, 동생인 온조는 한강 남쪽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여 백제를 세웠다. 그런데 비류가 세운 곳은 땅이 토박하고 물이 짜서 사람 살기에 적당치 않았으므로 나라의 기틀이 잡히지 않았다. 어느 날 비류는 동생 온조가 세운 백제에 가 보았다. 그곳은 기름진 넓은 땅에 사람들이 잘 살고 나라의 기틀이 잡혀있었다. 이에 비류는 의기소침하여 인천에 돌아와서 그만 죽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왕릉을 예분(瘞墳, 분해서 죽은 사람의 무덤)이라 불렀다. 비류의 능이 문학산 정상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 설만 구구할 뿐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인하대 대학원 학술답사팀 채록, 1999)

구전문학의 한 갈래인 설화(說話)는 일정한 줄거리를 지닌 서사적인 이야기로 허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설화에는 당대인의 생활상이나 풍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당대인의 생활상이나 풍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천지역에서 구전되는 설화 중에는 인천지역만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설화들은 인천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의 다양한 설화 중 건국신화와 시조설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글 | 남동걸 인천학연구원

인천광역시에는 본래 별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가진 4개의 지역, 즉 가까운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인천도호부·부평도호부·강화유수부의 관할지역 대부분과 김포군의 일부·충청도 남양군과 황해도 장연군 지역에 소속되었던 여러 섬이 하나의 행정단위로 합쳐져 형성되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지리적으로 크게 원인천(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일대), 부평(부평구, 계양구, 서구), 용진(용진군 전역), 강화(강화군 전역) 등 4개 권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용진과 강화권역은 도서지역으로 육지와는 달리 외부와 단절되었기에 지역 폐쇄성이 강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의 원형 보존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은 건국신화가 전승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설화의 특성들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천의 설화 연구는 인천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설화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류국 건국신화

인천의 건국신화로는 비류의 비류국 건국신화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비류와 그의 동생 온조는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인 유리가 찾아와 태자에 봉해지자 위협을 느껴 열 명의 신하, 그리고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다. 남쪽으로 내려온 형제는 서울 북한산에 올라 주변의 지세를 살펴보고, 비류는 지금의 인천인 미추홀에, 온조는 지금의 서울 강동(풍납동)인 위례성(慰禮城)에 각각 본거를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류는 고구려에서 함께 남하한 신하들의 간언을 물리침으로써 이들과 과도 갈라서게 되었다.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추홀로 옮겨가 자리를 잡은 비류는 문학산 주변을 근거지로 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 하지만 비류가 도읍한 미추홀은 땅이 토박하고 살기에 적당치 않은 곳이었다. 결국 비류는 나라를 세운 지 13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온조의 나라로 이주하였다. 온조는 기존의 세력과 이들 세력을 합하여 그때까지 '십제(十濟)라 불렀던 국호를 '백제(百濟)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비류국 건국신화 참조).

안관당 설화

옛적 미치광이라는 양반이 배꼽산 꼭대기에 우물을 파고 성을 쌓아 도읍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 안관할 아버지와 안관할머니가 '안관당'을 짓고 그 신을 모시었다. 예수를 신봉하던 박호장의 아내가 아들을 시켜 안관당과 신목(느티나무)을 불태우자 죽사하는 과변이 있는 이후 안관당 봉화지가가 머물러 살며 고향을 하였다. 일제시대에 철거되고 봉화대로 사용되다. 현재에도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제사를 지낸다. (『한구비문학대계』 인천)

하음 봉씨 시조 설화

옛날 고려시대에 저 봉천 연못에 노인, 노파 한 분이 올라가서 빨래를 했거든요. 빨래,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그냥 뒤집혀더라는 거야. 연못물이, 뒤집히면서 거기서 옥함(玉函)이 떠올랐대요. 옥함이 떠올라서 하두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걸 건져가지고 집으로 부리나케 가지고서 그 옥함을 열어보니까 예쁜 옥동자, 사내아이가 들어 있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려시대니까 송악이 도읍지니까 임금님한테 그 얘기를 갖다 바쳤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왕실에서 자랐지, 인제, 왕태자하고 같이 자란 거야. 인제, 앞으로 임금될 사람하고, 같이 자랐는데,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뒤 열 가지를 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영특했대.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가르쳐가지고서, 자 이거 이름도 없지 성도 없지 그러니까 임금이 성과 이름을 하사했대요. 그 하늘을 받들라고 해서 받들 봉(奉)자를 쓰고, 이름은 도울 우(佑)자를 써서, 봉우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그 인제 봉우가 봉씨 시조예요. 그 분이 높은 벼슬까지, 요즘 말하자면 참 국무총리 정도, 그런 벼슬을 오래했대. (김문태, 『강화 구비문학 대관』)

비류가 정착한 미추홀은 지리적 여건상 "땅이 토박하고 물이 짜서 사람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미추홀이 백성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묘사된 것은 온전한 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비류가 국가의 경영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결하고 만다는 점에서 비류의 건국신화는 주몽신화 등 다른 건국신화에 비해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화는 일반적으로 '신이(神異)한 출생-위기(비림반음)-영웅적 면모로 인한 위기극복-건국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는데 반해 비류의 신화에는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실패한 건국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인천지역에서는 비류와 관련된 설화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비류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비류가 미추홀에 건국한 국가가 문학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실패로 막을 내린 국가였지만 문학산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국가가 세워진 곳이기 지역민들에게 많은 경외심과 자긍심을 심어준 공간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천지역에서는 문학산을 신성시 여기는 풍습들이 남아 있다. 이는 안관당 설화에 잘 나타나 있다.

안관당 설화는 배꼽산(문학산의 이칭) 꼭대기에 도읍을 했다는 점에서 비류의 건국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꼭대기에 도읍을 한 미치광이 양반이 비류국을 건국한 비류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비류라고 한다면 땅이 투박하여 도읍지로 적당하지 않는 곳에 도읍을 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개국을 한 인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안관 할 아버지와 할머니에 의해 지어진 안관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성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산 위에 우물을 파고 성을 쌓아 도읍을 열었다는 것은 마니산의 단군 사적과 비견될 만하다. '신시(神市)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 영험에 관한 부가적인 사건을 통해 이러한 신앙이 오랫동안 외적과 외래종교에 맞서는 지역적 자긍심의 원천으로 기능해 왔음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실패한 국가이지만 뒤를 이은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시 여기며 이를 지켜내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씨 시조 설화

성씨 시조 설화는 넓은 의미에서 신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씨 시조 설화는 그 성씨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시조에 관련된 설화를 신성시 여기는 풍조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을 본향으로 가지고 있는 성씨에는 인천 이씨, 인천 채씨 등이 있지만, 신화적인 모티프를 지닌 시조 설화에는 하음 봉씨 시조(始祖) 설화 정도이다.

하음 봉씨 시조 설화는 인천시 강화군의 봉가지(奉歌池)라는 연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봉가지는 하음 봉씨의 시조인 우가 태어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다. 봉씨 시조 설화에 따르면 봉우는 신이한 탄생(연못이 뒤집히면서 떠오른 옥함으로부터 나온 봉우의 탄생과정)에서부터 왕실에서 자라게 된 과정과 영특한 재주를 보였다는 점 등에서 부여왕인 금와의 신화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신화적 특성이 다분하다. 다만 왕이 아니라 고관을 지냈다는 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물론 이 점은 이 설화가 신화의 특징 중의 하나인 범민족적인 범위에서 전승되지 않은 이유가 되긴 하지만, 하음 봉씨 후손들에 의해 탄생지 주변을 신성시 여겨 영역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충분히 신화적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설화로 볼 수 있다.

인천의 건국신화와 시조설화를 보면 비류국 건국신화는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가 빠진 불완전한 신화로 이는 실패한 건국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비류와 관련된 설화의 전승이 전무하지만 한 나라의 수도였다는 자긍심은 문학산의 안관당 설화 등을 통해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하음 봉씨 설화는 성씨 시조 설화이지만 신화적인 모티프가 있어 인천의 신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INU

과학 꿈나무들의 요람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 우리 대학의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적인 사고를 길러주고자 창의적 영재교육을 내걸고 1998년 출범했다. 출범 이후 13차례나 최우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전국의 과학영재교육 분야에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 | 편집실

우리 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은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자체와 인천대학교의 남다른 지원에 기인하고 있다. 차별화된 관심과 지원으로 선발, 교육, 학생 관리 부분에서 특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배려가 필요한 소외영재, 소외계층을 위한 다문화 특별 과정, 정월 내 우선 선발, 꿈장학재단 사업들을 진행하여 수월성, 특성화, 배려 교육이 실현되도록 힘쓰고 있다.

국내 과학영재교육의 앞선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은 타 대학에서도 벤치마킹을 원할 만큼 정체성을 확립했다. 박인호 과학영재교육원장은 “원리를 설명하고 실험위주로 진행해 학생들에게 과학적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하며 “이공계 교수들이 열정을 갖고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임했던 것이 오늘날의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1, 2 _ 해외 영재교육기관 연수
3, 4 _ 초등 가족과학 캠프
5, 6 _ 하계 체험학습 캠프



전국 최고, 수월성과 인성을 가르치는 영재교육기관

우리 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영재교육을 표방하며 수월성과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재능발현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 수행과 융합과학교육, 프로젝트교육, 통합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과학영재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은 물론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 교육원 선발 정원의 10%를 배려가 필요한 영재들에게 배정하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 내용에서도 자신의 재능 기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기주도적인 창조 과학교육, 전국으로 확산

우리 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은 연도별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은 정규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기초소양교육', 2012년에는 '과학동화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기초소양교육은 융합·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본 교육 실시 전 사전준비교육으로 인문 12시간, 융합(음악 및 미술) 12시간, 자기주도학습법 5시간 등을 진행했다. 과학적 독서 및 토론법을 배우고 음악과 미술을 통한 과학탐구활동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특강 등이 진행됐던 것이다. 지난 2011년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2012년 '과학동화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 실제 과학동화를 출판하기도 했다. 이렇게 탄생된 '꾸러기 영재들의 과학동화 이야기 1, 2권'은 전국 과학영재들의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은 철저한 원리중심, 실험·실습중심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원리를 도입한 과학영재예술학교가 오는 2016년 송도에 들어서게 된다. INU



우수기업 전문교수 제도 운영으로 취업률 Up!

지난 4년간 관련 기업체에 졸업생 115명 취업 성공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우수기업 전문교수 제도를 시작했다. 교양 및 학과 전공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체 대표나 임원, 전문가 등이 우수기업 전문교수로 위촉된다.

글 | 편집실

2013년 우수기업 전문교수는 제주물산 심호명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김병구 전무, 포스코 건설 이동만 부사장, KT 김재교 상무 등 34개 기업체 주요 임원들이다. 올해 우수기업 전문교수 분야는 학과와 연계하여 해양, 물류에서부터 전자, 통신, 건축, 건설, 금속, 디자인, 섬유, 플라스틱, 서비스 등 다양하다. 올해 위촉된 교수들은 2013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한다.

우수기업 전문교수 제도를 통해 대학과 기업체 간 능동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 학생들은 각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이고,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을 세밀하게 탐구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체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대학과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고 보완할 수 있어 기업과 대학이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현직 기업 임원을 '전문교수'로

올해 우수기업 전문교수로 재위촉된 심호명 제주물산 회장은 "대학은 전문지식을 잘 활용해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발전 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문지식은 학과 교수님들이 가르치실 것이니 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즉 리더가 되기 위한 인재의 자질에 대해 주로 강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심 회장은 "오늘날 우리

가바라는 리더는 확실한 국가관을 가진 리더다. 인천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웃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 특히 참인재라면 투철한 국가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우수기업 전문교수인 삼성전자 김병구 전무는 "삼성전자에서 인사채용 부분을 오래 맡으면서 쌓아 온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서 인천대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로 설정과 취업 준비 가운데 '인성' 부분을 주로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명사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감명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혁신을 이뤄 자신의 관점과 행동을 변화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자기탐구, 취업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 보는 기업탐구, 목표설정, 프레젠테이션 전략과 면접 준비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우수기업 전문교수제도는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형태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에 실제로 큰 효과를 가져왔다. 우수기업 전문교수인 경인해운공항 이상용 회장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에서 인천대학교의 물류 쪽에 강점을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인천대학교와 인연을 맺었다"며 "미래의 물류 인력들이 인천지역 곳곳에 배치되면 물류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수기업 전문교수제도를 통해 인천대와 연계된 물류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계획으로 이 회장은 "물류인력 채용을 매년 4월과 12월에 정례화해서 학교와 기업체 간의 구인과 구직이 함께 이뤄지는 채용의 장터를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률 상승

우리 대학은 우수기업 전문교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7회의 취업특강, 기업체 현장실습 62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은 관련 기업체에서 115명의 졸업생 취업과 대학발전기금 1억 2,450만원, 장학금 6,900만원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는 지난해 연말 운영했던 대기업 준비반을 올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내년도 상반기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3개월 동안 진행 된다.

양운근 취업경력개발원장은 "우수기업 전문교수 제도를 통해 학생들과 관련 기업체를 맺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수기업 전문교수들의 해당 전문 분야와 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특강 등의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원장은 "현재 35명인 우수기업 전문교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해당 분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INU

● 우수기업 전문교수 활동 현황(2009년~2012년)

졸업생 취업	2009년 : 13명 2010년 : 25명 2011년 : 45명 2012년 : 32명	총 115명
대학발전기금	1억 2,450만원	
장학금	6,900만원	
취업특강	47회 실시	학과 및 전체
현장실습	62명 현장 실습	방학기간 중



2014학년도 인천대 정시모집은 이렇게

올해 우리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20~24일이다. 모집군은 '가'군과 '다'군으로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936명을 선발하고 '다'군에서는 일반학생 전형 25명, 수능우수자 전형 283명, 농어촌학생 전형 51명, 특성학교 출신자 전형 38명 등 397명을 모집한다. 합격자 발표는 2014년 2월 5일이다.

글 | 입학관리팀

올해 우리 대학교 정시모집 총 인원(정원 내 기준)은 1,244명(46.4%)으로, 작년 1,321명(49.3%)보다 77명(2.9%) 감소했다. 게다가 매년 수시모집 미등록인원 감소에 따라 정시모집 이월인원도 줄어드는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정시모집 규모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작아질 수 있다.

우리 대학 정시모집의 특징은 수능 점수의 반영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가>군 일반학생 전형의 경우 수능 반영비율은 80% 이상인 반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다>군 수능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100%를 반영하며 학생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듯 정시에서는 학생부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전형일정

모집군	전형유형	접수기간 ※ 인터넷접수	실기고사	합격자발표일	
				최초발표일	최종발표일
가	일반학생 (예·체능 계열 제외)	2013. 12. 20(금) ~ 12. 24(화) 17:00까지	-	2014. 2. 5(수)	2014. 2. 19(수)
가	일반학생 (공연예술학과, 체육교육과)		2014. 1. 7(화)		
	일반학생(운동건강학부) 일반학생(체육학부,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2014. 1. 8(수) 2014. 1. 9(목)		
다	일반학생 (동북아국제통상학부)		-		
다	수능우수자	-			
다	농어촌/특성학교출신자	-			

● 수능 지정영역과 유형(A/B형)에 주의

올해 선택형 수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계열별로 지정된 "수능 유형"(A/B)으로, 정시모집 전 영역에 걸쳐 계열에 따라 A/B형, 사/과탐이 지정되어 있다. 즉 인문계열·소비자아동학과·패션산업학과는 수능 B-A-B형으로, 자연계열은 A-B-B형(각각 국어-수학-영어)으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탐구영역의 경우 인문계열은 사탐, 자연계열은 과탐, 소비자아동학과·패션산업학과·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사/과탐으로 지정되어 있다(특성학교출신자 전형은 직탐 포함). 따라서 지정된 영역과 유형에 맞지 않게 지원할 시 불합격처리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예체능 계열은 국어-영어-탐구영역을 유형이나 과목 구분 없이 선발한다. 다만 국어나 영어 B형 응

시자에게는 취득 백분위 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 예체능 계열은 전형방법, 실기고사 변경사항에 주의

체육학부와 운동건강학부는 올해 실기고사 종목이 바뀌므로 주의가 요구된다(자세한 내용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 www.incheon.ac.kr/admission 참고). 특히 이들 학부와 체육교육과의 경우는, 전형방식도 작년 단계별(1단계에게 수능성적으로 실기 대상자 7~10배수 선발) 방식에서 올해는 일괄합산(지원자 전원 실기고사 응시) 방식으로 변경되어 수능 성적이 낮더라도 실기고사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형예술학부(한국화·서양화)와 디자인학부에서도 실기용 정물이 변경(조형), 추가(디자인)되는 사항이 있다. 이들 학과의 실기고사 세부사항은 정시모집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체능 실기고사 변경사항

모집단위		실기종목	모집단위	실기종목
조형예술학부	한국화	수묵담채(정물)	운동건강학부	메디신볼던지기
	서양화	수채화(정물)		제자리멀리뛰기
디자인학부		사과의 전환 (이미지 + 주제어)	체육학부	배근력
체육학부		메디신볼던지기		싸이드스텝
		제자리멀리뛰기	25m왕복달리기(2회)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공연예술학과		20m왕복달리기(2회)	체육교육과	농구골밀점프슛(30초)
		특기(2분 이내)		턱걸이(남)·비켜턱걸이(여)
		즉흥연기(2분 이내)		

● 정시모집 장학금 혜택에도 주목

우리 대학은 단과대학이나 학과(부) 수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이외에도 다른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다군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입학생들에게는 4년 전액 등록금 면제와 전원 기숙사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중국·일본·러시아·미국 4개 국가 중 본인이 전공하는 통상국가에서 1년간 수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수능우수자>전형 최초합격자들에게는 계열별 수능 기준에 따라 1학기 등록금 전액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인천 소재 고교 출신자에 한해서는 <인천시민장학금> 명목으로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다.

※ 입학성적 상담 · 문의 : 032-835-0000
www.incheon.ac.kr/admission '인천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Q&A'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853명 학위 수여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16일 오전 11시 송도캠퍼스 공연장에서 졸업생, 가족, 초청인사 및 교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박사 25명(대학원 20, 물류대학원 5), 석사 157명(대학원 42, 동북아물류대학원 4, 교육대학원 64, 행정대학원 19, 공학대학원 7, 정보기술대학원 10, 경영대학원 11), 학사 671명(평생교육원14명 포함) 등 총 853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최성을 총장은 졸업 식사를 통해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맞은 졸업생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당당하고 자신에 찬 사회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과, 주어진 사회적 여건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 8.2대 1로 마감

9월 11일 마감한 "인천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에서, 정원 외 포함 666명 모집에 5,487명이 지원, 평균 8.2대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작년(6.3대) 보다 높은 경쟁률 보였다. 우리 대학 수시모집 1차에서는 학생부와 면접 중심 전형인 <일반학생> 전형 등 모두 6개 전형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모집인원이 507명으로 가장 많은 <일반학생> 전형은 8.71을,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9.21을 기록했다. 여학·컴퓨터 등 <특기자> 전형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자> 전형은 각각 4.61, 3.8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정원 외로 운영하는 <특성학교출신자> 전형은 9.5:1, <서해5도출신자> 전형은 1.5:1이었다. 주력 전형인 <일반학생> 전형에서는 체육교육과가 43.4:1로 가장 높았고, 공연예술학과(41.7:1)가 그 뒤를 이었다. 수시모집 1차 최초합격자 발표는 10월 26일이며, 수능시험 이후 수능최저기준 등이 적용되는 수시모집 2차 원서접수는 11월 11일~14일 진행된다.

'인천대학교 사회봉사센터' 개소



학생들의 체적적인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인천대학교 사회봉사센터' 개소식이 9월 2일 복지회관 3층에서 있었다. '사회봉사센터'설립은 우리 대학이 지난 3월 "지역의 인재를 창의적인 세계의 인재로 양성하는 대학",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으로 비전을 선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학기 개설된 사회봉사 교과목은 총 8개 강좌이며, 수강생 522명은 인천지역 80여 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회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뿐 아니라, 전공학문 연계 봉사활동 프로그램, 봉사 동아리, 인천대 봉사단 운영, 봉사활동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나누는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할 예정이다.

스페인 말라가대와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최성을 총장은 7월 3일 오후 5시 접견실에서 스페인 말라가대 후안 안토니오 (Juan Antonio Perles Rochel) 부총장 외 8명의 일행을 접견하고 양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양 대학은 교환 교수제, 공동연구 및 학생 교류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말라가대는 11월 개최 예정인 '한-스페인 포럼'에 최 총장을 초청했다. 2009년 1월 교류협정을 체결한 양 대학은 2013년 1학기 현재 인천대생 13명, 말라가대생 17명이 상호 대학에 파견되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평생교육원 수강생, '인천 소래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 '명예대학원'수강생 20여 명은 8월 28일 인천 소래산 등산로 주변에서 휴지 줍기 및 환경정화 캠페인 벌였다. 임덕신 학생대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래산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봉사 활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동아리도 결성하여 학생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원의 '명예대학원'과정은 50대 중·후반 대상의 2년 과정으로 2013년 1학기에 개설됐으며, 수료한 이후에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 있어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노년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과학영재교육원, '제1회 인천청소년물리토론대회 (I-YPT)' 개최
 우리 대학 과학영재교육연구소(소장 박인호)와 인천시 물리교과연구회가 주관하고 인천시 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회 인천청소년물리토론대회(이하 I-YPT)'가 8월 15일~17일까지 송도캠퍼스 자연과학대학(5호관)에서 열렸다.
 탐구 및 토론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고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인천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시한 자연현상에 관한 5개 탐구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20개 고등학교 중 예심을 통과한 16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 우승인 금상은 인천과학고등학교가 수상했다. 1학년 권진호, 신동엽, 강정훈, 정진성 학생들이 한 팀(지도교사 이창재)이 돼 결승에 진출한 인천과학고등학교는 4팀 가운데 1위(금상)를 차지하며 우승했다.

공자학원, 하계방학 중 학생 및 교장단 40명 무료 중국연수 시행



우리 대학 공자학원은 7월 22일~8월 3일까지 인천시 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중국 대련외국어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시행했다. 중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연수는 수준별 어학연수 및 문화 체험 등이 전액 무료로 진행됐다. 또한, 공자학원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단 10명을 대상으로 중국 연길, 대련에서 교육문화 연수를 실시했다. 문화체험 및 탐방, 중국 중·고등학교 방문, 대련외국어대학교 방문 및 강좌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한·중 문화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인천대학교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됐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됐다.

창업지원단, 창업아이디어 발표 'Play & Talk' 개최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은 9월 26일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친환경IT융합'이라는 주제로 2013년 창업선도대학 아이디어 발표를 개최했다. 실질적인 캠퍼스 창업문화 조성과 창업 생태계의 자리매김을 위해 진행된 'Play & Talk'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외부 심사위원 및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청중평가단 제도를 도입하여 창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자섭(전기공학부, 인스파이어 대표) 학생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청

중들도 함께 참여하는 "나도 CEO다"를 비롯하여, 5명의 예비창업자들의 발표와 지리산 친환경농산물유통 김가영 대표의 특강으로 이어졌다.
 특강 후 진행된 아이디어 시상에서는 엄준태 학생(마지, 경영학부)이 청의상, 김반석 학생(리뮤즈, 무역학과)이 열정상, 김형복 학생(배낭곡,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노병훈 학생(레스벨, 무역학과), 방승호 학생(친환경 자전거 대여사업, 건설환경공학부)이 각각 도전상을, 참가한 모든 청중이 함께 선정한 최고 투자상은 엄준태 학생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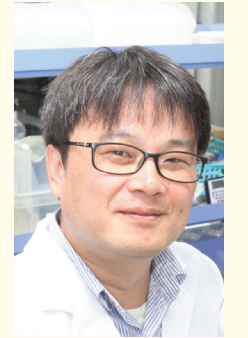
'제7회 하이드로 아시아 2013' 성황리에 폐막



우리 대학에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15국 14개 대학 49명의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제7회 하이드로 아시아 201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아시아와 유럽의 도시지역 홍수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인 하이드로아시아는 2007년 6월 우리 대학 최계운 교수(도시환경공학부, 현 Smart Water Grid 연구단장)의 주관으로 처음 개최됐다. 워크숍은 지난 7월부터 7주간 웹기반 온라인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국가별 학생들이 교류 참여하는 6개 팀을 중심으로 각 대학 교수들의 지도 아래 프로젝트 내용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로 진행됐다. 지도교수로는 도시홍수, 해안 및 해양, 도시지역 물관리, 수자원 분야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물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물 관련 교수들이 참여했다.
 워크숍 기간 중 인천교 유수지, 가좌하수처리장의 인천교 유수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방문하여 현장의 모습과 현황을 파악했으며, 현장견학이 끝난 후에는 월미공원을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워크숍 마지막 날 팀별 최종 성과발표에서는 최우수팀에 '그린팀'(지도교수 : 인천대 최계운 교수), 최우수 참가자상은 '화이트팀'의 박효선 씨(인천대 박사

물리학과 김병훈 교수 논문, 8월말 <Nature>지 'highlight'로 소개

우리 대학 물리학과 김병훈 교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용주 박사가 주도하고 울산과학기술대(UNIST) 전용석 교수(친환경에너지공학부) 등이 공동 참여한 연구팀이 단백질의 일종인 Bovine serum albumin (BSA)*과 그래핀을 이용하여 손쉽게 기존의 섬유를 전자섬유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양극성을 가지고 있는 소혈청 알부민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섬유, 즉, 나이론, 폴리에스터, 코튼 등을 그래핀 산화물로 감싸게 한 후, 화학적 방법으로 그래핀 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섬유를 이용하여 손쉽게 전자섬유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8월 15일 세계적인 재료학회지인 <Advanced Materials> 최신호 온라인판에 게재(논문명: A novel method for applying reduced graphene oxide directly to electronic textiles from yarns to fabrics)됐으며, 8월말 <Nature>지 highlight에도 소개됐다.
 * Bovine serum albumin(BSA): 소혈청 알부민으로 양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두 물질을 접합시킬 수 있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정, 지도교수 : 중국 베이징 대 Zhou Yuwen 교수)가 선정됐다.

정치외교학과 은용수 교수, 미국정치학회 대표 학술지에 논문 게재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은용수 교수와 영국 워릭대학교 피자리(Piezara) 연구원이 공저한 논문 "What is "Vintage" in IR? A Writer's Note,"가 <피에스: 정치학과 정치(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여류호에 게재됐다. <PS>는 정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대표 학술지의 하나로 케네스 윌츠, 조셉 나이, 로버트 코헤인 등 저명한 정치외교학자들의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곳이다. 은 교수는 논문에서 정치외교학 분야의 학술적 글쓰기 행태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나아가 문체와 학문 발전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로 구성된 논문 심사자들은 은 교수의 인문학적 접근과 논의가 정치외교학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북아물류대학원 여기태 교수, 박사과정 이태휘 군, 'Commended Paper award' 수상



동북아물류대학원 여기태 교수와 박사과정 이태휘 군은 8월 30일~3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ICASL 2013(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hipping and Logistics 2013)학술대회에서 "HOW TO BUILD UP THE PORT BRAND EQUITY,"라는 논문으로 'Commended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행만의 브랜드자산 가치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연구는 싱가포르 NTU(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대학과 공동 진행했으며, 관련 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됐다.

학생 홍보대사 '드림이' 임명장 수여



9월 30일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최성을 총장, 구경현 대외교류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학생 홍보대사 '드림이' 18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학생 홍보대사 '드림이'는 '국립 인천대의 꿈과 희망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대학탐방 프로그램 및 홍보관 운영, 입시행사 지원, 교내행사 의전,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4월 기획처 대외협력과 소속 15명의 학생들로 출발한 '드림이'는, 2012년 12월까지 총 100여 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성을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국립 전환이라는 대학의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이다. 홍보대사들은 대학의 얼굴이라는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고 홍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마트위터그리드연구단, 필리핀 국가수자원청과 양해각서 체결

7월 26일 우리 대학 스마트위터그리드연구단(단장 최계운 교수)과 필리핀 국가수자원청(NWRB)은 스마트위터그리드 기술 적용을 통해 필리핀 주요 지역에 대한 물 관리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스마트위터그리드 연구단의 핵심요소 기술들을 현지에서 적용함으로써 우수부족 및 홍수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주요지역에 대한 물 관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는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필리핀 물 사업 계획수립, SWG 통합운영시스템의 필리핀 현지 적용 및 설치지원, 기술 상담을 위한 파견지원, 필리핀 테스트베드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NWRB의 자료제공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Donation Interview

정년퇴임과 함께 퇴직금 중 2,000만원 기부

김문기 前 운동학부 교수



클 편집실

우리 대학 운동건강학부 김문기 교수가 정년퇴임으로 받는 퇴직금의 일부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김문기 교수는 "무도학과 교수로 시작해 학교의 변화와 함께해 왔다"며 "이번 기부는 30년 세월을 함께한 우리 대학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 이곳에서 공부할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교내의 다양한 단체에서 장(長)을 맡으며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 청년사회복지관에서 10년 넘게 봉사를 해왔고, 2000년대에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봉사를 습관처럼 행해온 김 교수에게 기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던 김 교수는 우리 대학이 전문대학이었을 당시에 무도학과 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을 지도했다. '파르테르 봉사단'을 만든 김 교수는 무도학과 학생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봉사단의 이름인 파르테르는 레슬링 용어로 '발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봉사단 이름을 지은 이유는 선수들이 경기 도중 상대편이 공격하기 좋은 자세인 '파르테르'를 받는 시합에서와는 달리 사회에서는 선행으로 칭찬을 받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전한다.

김 교수는 학생들과 김포의 '프란치스코의 집'에 방문해 몸이 불편한 장애아동들을 도왔고, 사비를 털어 전용 버스를 마련해 원활한 봉사활동을 지원했다. 매주 미용사들을 태우고 가평의 꽃동네, 김포의 프란치스코의 집 등에 방문하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장애아동들을 위해 나들이도 계획했다. 공식적으로 35회,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며 제자들에게 나눔의 즐거움을 일깨워주었다.

김 교수는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말이 있듯, 봉사는 그런 것입니다"라며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기부도 자신이 가진 일부를 나누는 것일 뿐이라고 하며 "저보다 아내가 먼저 기부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기부에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김 교수는 "매월 조금씩 기부에 동참하는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많이 있다"며 "그분들의 공로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최성을 총장, 성미영 교수, 김길원 교수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장학증서 수여식

여교수회, 대학발전기금 5,500만원 기탁

우리 대학 여교수회는 9월 23일 최성을 총장을 방문하고, 지난 1989년부터 회원들로부터 20여 년간 급여공제를 통해 마련된 대학발전기금 5,500만원을 전달했다.

그동안 여교수회는 1989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여학생 100여 명에게 1인당 100~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성미영 여교수회 회장은 "그동안은 여교수회가 직접 기금을 운영하며 이자수입으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나, 체계적인 기금 관리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대학에 전달

하게 됐다"며, "인천대가 거점 국립대학으로 조속히 정착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정대학원 최고과정 33기, 500만원 발전기금 전달

행정대학원 최고과정 33기 졸업생일동(회장 성기현)은 7월 5일 그동안 모아온 회비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

성기현 회장은 "국립대학으로 전환하고 5대 거점국립대학으로 도약을 꿈꾸는 우리 대학의 미래에 무한한 박수를 보내며 졸업생 일동이 정성을 모아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기금 전달 배경을 밝혔다.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지급사업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은 연간 100여 명에서 140명의 우수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3년도 1년간 140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연간 2억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동문, 교직원, 유수기업, 재단, 단체 등에서 기부한 재원으로 창출된 이자 수입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더욱 활성화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2013학년도 2학기 장학생 지급명단(70명)

정보기술대학	안광오 조성민 조혜진 이민우 민충기 이정인 박윤정
자연과학대학	이기엽 정채균 최지혜 전현우 유지현
생명과학기술대학	강현아 이지혜
경영대학	이상현 김지애 공현식 여인준
동북아경제통상대학	임진규 황보람 이예원 신현주 김동현 이상훈 김은진
사회과학대학	김하늘 이광준 한정애 김찬주
사범대학	오누리 민수현
법과대학	오소현 홍다빈
도시과학대학	김보경 최종각 신준식 박정원 김광섭 김지숙 최영아 조현민
예술체육대학	유미선 이진호 한규형 구찬모 유인태 김국환 김진원
공과대학	김정훈 이대훈 조준희 박채균 서홍철 오진섭 박종철 임성범 신성현 김병석 지영근 이지운 김범수 이민욱 정진현 김혜련
인문대학	최주연 박지혜 김진용 이하영 정미정 서현근

공연예술학과 공연수익금 전액기부

공연예술학과 이은주 교수와 그 제자들이 8월 27일 외부초청공연 수익금 전액인 30만원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후배사랑을 실천한 이번 기부는 학생들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고덕봉 전략홍보팀장, 기호일보 참일꾼상 상금전액 기부

우리 대학 전략홍보팀 고덕봉 팀장이 '기호일보 첫 참일꾼상'(교육행정분야)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 전액(100만원)을 우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수상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인천대는 올해 초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대가 가야할 길은 지역사회 거점국립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저 또한 인천대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뜻 깊은 상금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이며, 학교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길 바란다"며 상금 전액을 기부금으로 전달하였다.

●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장학금 되돌려주기

재학시절 자신이 소중하게 받았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되돌려주는 기부캠페인입니다. 장학금 되돌려주기로 모아진 여러분의 사랑을 소중히 전달하여 많은 후배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100만원 이상 후원(분할납부 가능)

Tel. 032-835-8080



INU LOVE 발전기금 기부자 현황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국립인천대학교를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무통장 후원하기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ARS 후원금 서비스 060-703-1212 한 통화당 3,000원

〈소액기부 캠페인 참가자〉

소속	이름	직위
디자인학부	강현옥	교수
조형예술학부	고찬규	교수
불어불문학과	고혜영	교수
디자인학부	곽성근	교수
전자공학과	구경현	교수
사회복지학과	권정호	교수
독어독문학과	권혁준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김기준	교수
기계공학부	김내현	교수
교육대학원	김복영	교수
전기공학과	김상남	교수
전기공학과	김상진	교수
디자인학부	김성희	교수
무역학부	김순홍	교수
디자인학부	김영희	교수
불어불문학과	김용민	교수
컴퓨터공학부	김우일	교수
도시환경공학부	김응철	교수
정보통신공학과	김익수	교수
산업경영공학과	김재곤	교수
전기공학과	김준동	교수
전기공학과	김준석	교수
동북아물류대학원	김태복	교수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
전기공학과	김학만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민철기	교수
정보통신공학과	민홍기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박성완	교수
창의인재개발학과	박용호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박인선	교수
정보통신공학과	박정훈	교수
디자인학부	박종찬	교수
전자공학과	변윤식	교수
도시행정학과	서종국	교수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송여숙	교수
국어국문학과	송원용	교수
컴퓨터공학부	송월봉	교수
디자인학부	송현호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신관수	교수
전기공학과	신재화	교수
동북아물류대학원	안승범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안호선	교수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안효린	교수
전자공학과	양운근	교수
동북아물류대학원	양창호	교수
불어불문학과	오은하	교수
정보통신공학과	우요섭	교수
전자공학과	유종근	교수
교육대학원	윤세원	교수
일어일문학과	이건상	교수
경제학과	이명현	교수
전기공학과	이병하	교수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이시자	교수
불어불문학과	이영석	교수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이영섭	교수
독어독문학과	이원경	교수
독어독문학과	이지은	교수

(39페이지 계속)

기부자명	기부액
여교수회장학회	54,981,250
김문기	20,000,000
행정대학원최고과정33기	5,000,000
(주)꿈아이디어앤티블	3,000,000
변윤식	1,500,000
(주)벌리	1,000,000
고덕봉	1,000,000
김춘숙	1,000,000
윤영준	1,000,000
(주)시트론정보통신	600,000
배양섭	600,000
조중휘	450,000
공연예술학과	300,000
김기웅	300,000
김영관	300,000
김재영	300,000
익명	300,000
박인호	300,000
손천택	300,000
윤찬원	300,000
이균익	300,000
이병수	300,000
이상락	300,000
이승민	300,000
이재석	300,000
이재성	300,000
이종열	300,000
공릉고기신도시점	200,000
김장성	200,000
김주영	200,000
이찬식	200,000
박일종	200,000
김동호	150,000
김병훈	150,000
김숙진	150,000
김승환	150,000
박종욱	150,000
신원태	150,000
우인성	150,000
임주택	150,000
한상혁	150,000
구경현	100,000
김평현	100,000
문희중	100,000
유정흔	100,000
윤용	100,000
이갑영	100,000
임만섭	100,000
최근영	100,000
기종섭	90,000
김교흥	90,000
김정근	90,000
김찬주	90,000
박은경	90,000
신동태	90,000
신호수	90,000
안춘순	90,000
우칭기	90,000

기간 : 2013년 7월 1일 ~ 9월 27일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성명(상호명)	☐ 동문 · 재학생	학과(부) 입학년도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학 부 모	학생성명	소속학과
E-mail	☐ 교 직 원	근무부서	직위
전 화	☐ 기 업 · 재 단	근무부서	직위
핸드폰	☐ 일반인	직 장 명	
주 소			
기부(약정)액	일금 원정 (₩)		

* 해당되는 □에 √로 표시하고 세부사항을 적어주십시오.

납부기간	☐ 일시납부 (20 년 월 일)		☐ 분할납부 (20 년 월 ~ 20 년 월까지) 매월 원씩 (회)	
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 자동이체(CMS)	은 행 명 :	결제일 : ☐ 5일 ☐ 15일 ☐ 20일 ☐ 25일	
	☐ 교직원 급여공제	계좌번호 :	결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까지	
기부출연 권유자	* 기부권유자 명기 시 반드시 기부자께서 자필로 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전화(휴대전화) :			

위와 같이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인천대학교 총장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귀하

모/금/사/업

[모금캠페인 Contribution Campain]

- Vision 2020 인천대 사랑
- 장학금 되돌려주기
- 텐텐클럽(1010클럽)

[네이밍캠페인 Naming Campain]

- 건물명 짓기
- 강의실명 짓기
- 공원벤치 이름 넣기
- 의자이름 남기기

* 각 모금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 (http://funnd.incheon.ac.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Tel 032-835-8080, Fax 032-835-0750

품칠하는 곳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주소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11.1~2014.10.31
인천 우체국
승인 제40075호

받는 사람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12-1)

4 0 6 - 7 7 2



국립인천대학교를 후원해 주신
후원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6페이지에 이어서)

소속	이름	직위
도시건축학부	이찬식	교수
도시행정학과	이창길	교수
정보통신공학과	이한영	교수
디자인학부	이호명	교수
생명과학부	임경환	교수
창의인재개발학과	임정훈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전동근	교수
전자공학과	전석희	교수
도시건설공학	전찬기	교수
전기공학과	정영식	교수
문헌정보학과	정옥경	교수
일어일문학과	조사옥	교수
교육대학원	조인구	교수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조중휘	교수
국어국문학과	조현우	교수
경영대학	주현태	교수
조형예술학부	차기울	교수
국어국문학과	채소희	교수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채종옥	교수
컴퓨터공학부	채진석	교수
도시환경공학부	최병길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홍선표	교수
안전공학과	황명환	교수
일어일문학과	황미옥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황상순	교수
도시건축학부	황영삼	교수
인천대학교	최성을	교수(총장)
교육대학원	강치후	조교
신소재공학과	곽문선	조교
취업지원팀	구선희	조교
신소재공학과	김경아	조교
전자공학과	김정영	조교
문헌정보학과	김지섭	조교
전자공학과	신현주	조교
생명과학부	오윤희	조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오지은	조교
불어불문학과	유은정	조교
도시건축학부	유재은	조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윤수민	조교
일어일문학과	이병관	조교
전자공학과	이윤정	조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이은직	조교
기계시스템공학부	이창연	조교
세무회계학과	전동진	조교
화학과	최민경	조교
취업경력개발원	최영미	조교
산업경영공학과	황미숙	조교
정보기획팀	강상미	직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강연재	직원
총무팀	강호현	직원
정보전산원 정보운영팀	경명진	직원
전략홍보팀	고덕봉	직원

소속	이름	직위
학술정보운영팀	고은희	직원
전략홍보팀	권정희	직원
교육지원팀	김관식	직원
시설운영팀	김광수	직원
연구기획팀	김광열	직원
경영대학원	김기만	직원
생명과학기술대학 교학실	김동규	직원
대의협력팀	김동호	직원
전략기획팀	김미숙	직원
교무팀	김산정	직원
재정예산팀	김선경	직원
산학협력단 총무회계팀	김순옥	직원
감사팀	김영주	직원
시설운영팀	김영철	직원
재물포교학행정팀	김은선	직원
교학팀	김재찬	직원
정보전산원 정보운영팀	김정기	직원
취업지원팀	김정민	직원
총무회계팀	김정아	직원
국제교류원	김정은	직원
기획평가팀	김종호	직원
전자공학과	김진석	직원
총무팀	김창우	직원
학술정보지원팀	김창자	직원
대의협력팀	김현규	직원
인력개발팀	김현우	직원
정보기획팀	김형근	직원
역량개발팀	김형기	직원
교학행정팀	노정호	직원
사무처장	문경복	직원
교육지원팀	문은호	직원
사무처 총무팀	민금홍	직원
총무팀	민문기	직원
교학팀	박미선	직원
취업경력개발원	박복만	직원
교무팀	박상임	직원
재정예산팀	박사우	직원
재정예산팀	박재일	직원
전략기획팀	박정승	직원
시설운영팀	박형의	직원
대의협력팀	박혜정	직원
회계관재팀	방동인	직원
교육지원팀	방재한	직원
학술정보운영팀	배순희	직원
교학행정팀	서상희	직원
학생지원팀 보건진료소	설경자	직원
대의협력팀	성지옥	직원
도시과학기술대학 교학실	신미옥	직원
자연과학대학	심인애	직원
경영대학	안익태	직원
재정예산팀	안해균	직원
재물포교학행정팀	우금순	직원

소속	이름	직위
국제교류원	우재대	직원
공과대학 교학실	윤수진	직원
생명과학기술대학	윤종구	직원
동북아경제통상대학 교학실	윤창근	직원
경영대학	윤춘화	직원
시설기획팀	이강서	직원
감사팀	이광희	직원
학술정보운영팀	이나영	직원
정보기획팀	이상동	직원
재물포교학행정팀	이석기	직원
회계관재팀	이승열	직원
총무팀	이승철	직원
재물포교학행정팀	이연희	직원
교수학습지원팀	이영일	직원
체육진흥원	이종권	직원
학술정보운영팀	이종혁	직원
역량개발팀	이진섭	직원
학생지원팀	이진희	직원
회계관재팀	이종우	직원
공자학원	이향숙	직원
시설운영팀	이황주	직원
입학관리팀	임병미	직원
회계관재팀	장서은	직원
교수학습지원팀	장소영	직원
대학원	장현주	직원
학술정보지원팀	장희경	직원
총무팀	전병준	직원
회계관재팀	전용재	직원
교육대학원	전재철	직원
총무팀	정경란	직원
기획평가팀	정경찬	직원
시설운영팀	정영민	직원
인력개발팀	조길수	직원
사범대학 교학실	조명순	직원
재정예산팀	조천순	직원
인문대학 교학행정실	최병심	직원
대학원	최예선	직원
교학팀	최윤정	직원
기획평가팀	최윤희	직원
사무처 총무팀	최인수	직원
대학원	최일용	직원
기초교육팀	최재웅	직원
기초교육원	최준영	직원
교육지원팀	한상희	직원
교무팀	한승현	직원
시설운영팀	한양호	직원
총무팀	한종민	직원
교학행정팀	허성희	직원
인문대학 교학행정실	홍수민	직원
학술정보지원팀	황선용	직원
재물포교학행정팀	황재현	직원
대학건설본부 운영팀	황태진	직원